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20.60	↓ 코스닥	791.84
	(-463.81)		(-37.59)
↓ 금리 (국고채 3년)	3.848	↑ 환율 (원·달러)	1487.00
	(-0.018)		(+8.50)



m-커버스토리

“공급 과정마다 병목… 금융·세제지원 중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정부, 공급·금융·세제 국민제안
“비아파트 공급에 공감대 형성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약”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연례 토론회가 마무리 되면서 국민의 관심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로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은 물론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국민 제안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다공(다치고 공급)’이라고 할 만큼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갈 길은 멀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토론회 모두 발제를 통해

“주택공급은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입주까지 파이프라인 흐름으로 봐야하는데 지금은 과정마다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는 금융·세제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비(非)아파트의 경우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지만 대출 등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위축은 건축 규제와 대출, 세금, 전세사기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파트와 같이 규제지역에 묶여 대출 제약도 크고, 현실적으로 기금이나 보증 상품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컸지만 실제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보니 규제 완화 목소리만 가득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게 하는 방안만이 우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찬반 논란이 격화됐던 분야다. 이미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풀자니 집값이 걱정이고, 계속 조이자니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크다.

토론회에서는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가계

부채 총량규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이대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소득과 자산 규모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 유무만 갖고 주택 구매가 결정되며, 이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미군 전사자 발생에 이란 방공시설 공습 美-이란, 보복 난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의 진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군 전사자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확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양측이 맺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으로 18일 오후 6시(한국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한국 오후 12시30분)까지 다섯 시간 남짓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의 해안감시 시설과 방공 시설, 미사일·드론 창고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앞서 17일 요르단 아즈라크 소재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에 해당 기지에 복무하던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양국 종전 MOU 이미 효력 상실
북무 중 미군 2명 숨지고 1명 실종
美 트럼프 지시로 이란시설 타격
발전소·교량 등 기반 폭격 경고

2월 말 이후의 중동전쟁에서 미군 전사자가 나온 것은 양측이 4월 초 휴전을 선언한 이래 처음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전사자 수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개전 다음날인 3월 1일 쿠웨이트 제103원정지원사령부 파격으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부상한 장병 1명이 치료 도중 숨졌다. 3월 12일에는 아라크 서부에서 KC-135 공중급유기가 추락하면서 6명이 사망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내건 조건에 이반 주말(7월 19일)까지 이란 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발전소 및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폭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서면 성명이 이란 국영 TV를 통해 전해졌다. 모스타바는 “미국이 종전 MOU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은 전쟁 재발과 관련해 “미국의 부정적, 불합리, 신랄하기 어려움, 비협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이란 국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주말 공습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이란 호르무즈간 주의 항구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도 시시리크와 해협 입구에 위치한 케슬, 내륙도시 하자바드 등이 각각 공격을 받았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쿠팡 인천 물류센터 27시간째 화재진압 중

19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소방당국이 전날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54분쯤 발생한 화재는 2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11시쯤 초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1〉**

“돈 있으면 혼자 산다”… 1인 가구 74% ‘현재 삶에 만족’

KB금융, 2026 1인 가구 보고서
삶 만족도 2년 전 보다 2.3%p ↑
1인 가구 805만 가구, 전체의 36%
응답자 58% ‘1인 생활 지속할 것’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만족도는 물론 향후 지속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 전반에서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누렸고, 증시 상황에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빚투(빚내서 투자)’에도 나섰다.

19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73.5%로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2.3%포인트(p) 높아졌다.

세부 부문별로는 ‘공간·환경’이 79.5%로 가장 높았고 ▲여가생활 74.8% ▲인간관계 62.4% ▲경제력 5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6개월 이상 1인 생활을 이어가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만 25~59세 남녀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현재 국내 1인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거 가구 표준인 3인 가구(18.8%)와 4인 가구(12.7%)를 합친 것보다 비중이 더 높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1인 가구를 일과 소비, 자산운용 전반에서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한 주제로 조명했다”며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정 세대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어느 시점에 마주할 수 있는 삶의 한 형태”라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1인 생활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58.3%로 절반을 넘었고, 지속할 의향이 ‘낮다’는 응답자 비중은 8.9%에 그쳤다.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61.4%)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가 15.9%를 차지했다. 다만 현재의 ‘경제적 안정’(24.0%)과 미래의 ‘건강’(25.7%)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아 자율성과 취향성이 교차하는 구조적 특성을 드러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추미애, 檢보완수사 일부 존치 추장에 “文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사진 뉴스1〉**
▲與, 20일 금융위·금감원 당정 간담회…‘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고 받을 듯

▲국힘 “與, 2차 종합특검 연장하면서…‘참정권 특검’은 왜 미루나”
▲北, DMZ 인근에 방사포 지원시설 다수 건설
정황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60% 첫 돌파…남자도 46%
▲폭염에 누적 온열질환자 1000명 돌파…사망자 3명